

최종증·중복 장애인 차별 심각하다

헬스장 등록·비행기 탑승 등 거부당하기 일쑤

구체적인 사례 모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서 제출

여러 장애를 가진 최종증·중복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아동 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장애를 가진 최종증·중복 장애인에 대한 차

별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최종증 장애와 중복장애 자녀를 둔 부모 237명으로부터 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구체적 차별 사건 101건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이 모은 사례를 보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료, 교육 등 일

상생활에서 차별을 겪은 경우가 많다. 한 부모는 “재활병원에서 나이 제한이 있다며 치료를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집을 흘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고 다른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 상담을 하러 갔는데 교감이 ‘이런(장애인) 아이들이 너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수학여행이나 1박 2일 현장 체험학습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등 교내외 활동에서도 차별받았다.

고용 영역에서는 중복장애 때문에 직업훈련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문화생활이나 교통수단 활용에서도 어려움이 컸다. 한 부모는 “시각·발달장

애 딸과 직업훈련센터에 갔는데 시각 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 장애가 있다고 꺼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시각 장애가 있다고 힘들다고 했다”면서 “중복 장애는 다른 장애인보다 행동의 제약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헬스장 이용을 막거나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부모연대는 “중증·중복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이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실시

광주시는 28일부터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장애인의 학습과 교육,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시각·청각 장애인이다.

신청은 11월8일 오후 5시까지 광주시 보조기기센터로 방문, 우

오늘부터 장애인 대상 특수마우스·점자학습기 등 16종 23대 무상 임대

편,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기기센터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23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장애인은 최대 1년 간 특수마우스, 점자학습기 등 16종의 보조기기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giat.or.kr) 또는 보조기기센터(062-613-9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학습 및 교육관련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교육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애인이 가족에 빼긴 전재산 찾아준 검사

대검 인권부, 고현욱 검사 포함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중증 지적장애인이 가족에게 빼긴 전재산을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운 사례가 대검찰청 선정 인권보호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대검 인권부(부장 문흥성 검사장)는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장애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 이 사례를 포함한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창의적 인권보호 제도개선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현욱 전주지검 징역지청 검사(36·변호사시험 4회)는 친동생 등 친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전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선임된 성년후견인으로 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친족인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빼돌린 재산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에 의거해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이다. 후견인의 업무



고현욱 전주지검 징역지청 검사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피해자는 성년후견인을 통해 장애인 복지 혜택과 기초생활수급비도 받게 됐다.

이승필 창원지검 형사3부 검사(43·사법연수원 41기)는 집안 가장인 피의자가 구속되며 베트남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자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진순 광주지검 검사(38·40기)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감·포송 등 보호장비 해제 지침 개선안을 제시했다. 남소정 서울동부지검 검사(36·변시1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해 구속 전 화상면담 제도를 실시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위한 영화 관람 진행

구례자연드림시네마서 56명 참여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송태영)이 지난 22일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구례자연드림시네마에서 함께 영화관람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유도를 위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단체인 초심회, 여성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간병사협회, 천주교교우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56명이 참

여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OO 자원봉사자는 “구례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는지 몰랐어요. 이번 기회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송태영 관장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구례지역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발맞춰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